

버추얼엠디, 의료정보 공유 특허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정보 저장 및 관리를 위해 스마트카드 기반의 전자진료카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벤처기업인 버추얼엠디(www.virtualmd.co.kr 대표 김석화)가 '단일 의료카드를 이용한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버추얼엠디의 '헬스원 카드'에는 현재 환자식별 정보·요양기관 정보·처방전 정보·조제 정보가 IC 칩에 저장되며, 진료실에서 입력을 지원할 경우 번역정보·투약정보·혈액정보·응급정보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카드에 저장된 정보는 IC 칩에 내장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타 병원과 공유될 수 있다.

버추얼엠디는 지난 5월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자진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2천장 정도의 카드를 발급했다. 이 회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전자진료카드시스템 구축도 완료하고, 이달부터 임직원부터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정식 가동될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헬스원 카드를 발급받은 환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버추얼엠디 관계자는 '이번 특허 획득은 환자정보 공유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헬스원 카드는 마스터 및 비자 계열 카드를 모두 지원해 양쪽간 호환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동아연필, '키티' 특허권 논쟁으로 한숨짓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잦은 분쟁이 자금·인력·기술난 삼중고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은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동아연필은 '키티'라는 아기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일본 산리오와 2년째 싸우고 있다. 지난 8월 3일 특허심판원에서 산리오의 '키티' 상표등록이 무효화되고 동아연필의 상표권이 인정됐지만 산리오측이 상급 법원인 특허법원에 특허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동아연필은 지난해 산리오가 동아연필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산리오의 손을 들어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자체의 원시적 하자를 묻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진 2001년 이후 2년 동안 동아연필이 치른 소송은 민사소송 9건, 특허심판 8건, 이의신청 2건을 합쳐 19건이다.

윤창봉 동아연필 상무는 '변호사 수입료, 각종 행정수수료는 물론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다'며 '특히 사용금지처분을 우려해

2년 전부터 키티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 동아연필은 승소로 일단 키티에 대한 권리는 가졌지만 붐을 타는 것이 중요한 캐릭터 시장에서 2년 간 공백기를 가진 '키티 붐'을 어떻게 조성 하겠느냐며 한숨짓고 있다.



◀ 동아연필이 일본 산리오와 2년째 특허권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캐릭터 '키티'가 지난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캐릭터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특허취소 효력은 소급 적용하여 판결

특허신청을 낸 뒤 제품개발에 참여한 직원을 스카우트 당해 피해를 입었다더라도 이후 특허 자체가 취소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단독 이수영 판사는 지난 달 4일 A사가 '특허신청을 낸 뒤 제품개발에 참여한 직원을 스카우트 당하는 바람에 손해입었다'면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방재시스템 개발업체인 A사는 지난 1999년부터 B사에 소방기기 중계기 시스템을 납품해오다가 2001년 6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A사가 개발한 이 새로운 시스템은 2002년 8월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특허 취소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B사가 이 시스템 개발에 관여해온 A사 직원 3명을 특허취소 이전인 2002년 2월 스카우트해 A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A사는 '비록 특허가 취소됐지만 신제품 개발에 참여한 직원들을 빼내야 피해를 입었다'면서 B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반도체 검사기술 특허 중소기업이 주도한다

최근 5년 간 패키지 단위의 반도체 검사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출원이 주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연도별 출원추이를 보면 98년을 정점으로 국내 대기업의 특허출원이 급감한 반면에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누적출원건수에서도 중소기업의 출원은 대기업을 추월한 53%의 점유율(총 407건 중 214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간 패키지 단위의 반도체 검사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한 국내 중소기업체의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업체가 실리콘테크, 내일시스템, 메가텍스사 등이다.

출원인별 점유율에 있어서 내국인 출원은 98년도에 74%, 02년도에는 65% 등으로 나타나 외국 출원인에 비해 꾸준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패키지 단위의 검사 기술이란 집적된 전자회로가 형성된 반도체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도체를 수지 등과 같은 물질로 둘러싼 것을 패키지라 하며 이러한 패키지 내부에 묻혀있는 집적회로에 대하여 전기적 기능의 양호 혹은 불량여부를 검출하는 기술로서 반도체 제조기술 가운데 패딩형성기술, 조립기술과 더불어 필수적인 공정기술이다.

세계 반도체 장치가 차지하는 시장의 규모는 1백95억불 정도로 그 중 반도체 검사 장치는 41억불 정도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고, 2003년에는 약 50억불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영역이라 보여진다.

■ 지면안내 ■

- 3 아들의 꿈, 아버지가 이루다
- 5 한국, 지재권 관련 국제 기구 의장 선출
- 6 생활 속의 지혜 현명하게 가구 고르고 사용하기
- 9 인물 FOCUS 백상상사 김윤생 대표
- 10 광주 금당중학교 발명교실
- 12 마음은 하얗게, 음식은 까맣게
- 13 세계 지재권 기구, 국제 특허출원 온라인 접수
- 15 인천시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안내

북한용어 특허출원 매년 증가

어감이 친근하고 말이 예쁜 북한용어가 속속 상표로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은 아직 전체상표 출원 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출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이후 상표로 출원된 북한 용어는 1백23건으로 1999년 이후에는 매년 10~20건씩 출원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23건이 출원됐다.

주로 식품류나 요식업에서의 상표출원이 많은데 뜨더국(수제비), 남비탕(찌개), 단물(주스),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북한용어를 결합한 상표가 출원되고 있다. 또 의류에서는 가슴띠(브래지어), 땀기(리본), 그리고 화장품류는 다리매(각선미), 살결물(스킨로션), 색동다리(무지개), 오목샘(보조개) 등이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남북화해 무드 등 사회적 분위기와 북한에 대한 국민관심에 따라 출원이 증감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비교 후 출원방법 선택해야 이익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달 17일 실용신안등록 출원과 특허 출원간 비교분석 가이드를 통해 두 제도는 권리확보의 범위나 성격,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후 출원방법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용신안 출원은 심사 처리의 장기화로 조기권리확보에 불만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등록 후에도 기술평가를 청구해 유지결정을 받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또 특허와는 달리 기술평가 유지결정없이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기간이나 정정의 범위가 극히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문에 등록할 때 출원인이 처음부터 출원명세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이동국 심사조정과 사무관은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는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수명이 짧은 기술에 적합하다'며 '기술성격에 따라 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